



미 증시, 파월 의장 연임 소화하며 차별화 장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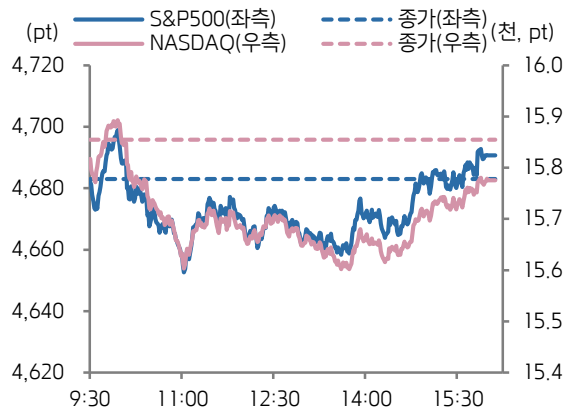
23 일 (화) 미국 증시는 시장 금리 상승 부담 속 제조업 PMI 호조 등으로 인한 성장주에서 경기민감 업종으로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며 혼조세로 마감.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전일 8bp 상승 후 이날 추가적으로 4bp 가 상승하면서 금융 업종 강세, IT 업종 약세 등 금리 변화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흐름이 지속됨(다우 +0.55%, S&P500 +0.17%, 나스닥 -0.5%, 러셀 2000 -0.15%).

금일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는 미국과 독일의 서비스 섹터의 전월대비 소폭 둔화 흐름도 보였지만 제조업 섹터들은 모두 개선되며 이날 경기민감 업종들의 강세를 지지. 미국 제조업 PMI 는 59.1pt(예상 95.0, 전월 58.4pt), 서비스업은 57.0pt(예상 59.0pt, 전월 58.7pt)를 기록. 장중에 발표된 리치몬드 제조업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12→11pt)되었지만, 출하량(1→4pt) 등 세부 항목들은 양호했음.

업종별로 에너지(+3.0%), 금융(+1.6%), 부동산(+1.1%) 등이 상승한 반면, 경기소비재(-0.6%), 커뮤니케이션스(-0.4%), IT(-0.2%)는 하락. 에너지 업종은 유가 상승 전환에 힘입어 상승. 아시아 증시에서 미국, 인도, 일본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음에도, OPEC 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량을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2%대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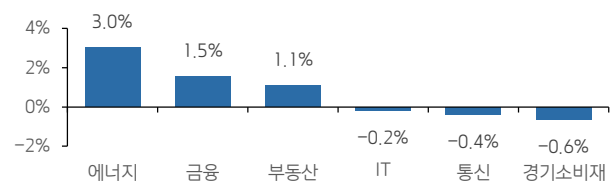
종목별 흐름으로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줌 비디오(-14.7%)는 EPS 1.13 달러(예상 1.11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 연간 가이드선도 상향 조정했지만, 매출 성장을 둔화로 도이체뱅크, BOA 등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베스트바이(-12.3%), 디스스포팅굿즈(-4.1%), 어반아웃피터즈(-9.3%), 아베크롬비(-12.6%) 등 소매 유통업체들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 불구하고 주가 하락. 한편, 웨스턴디지털(+6.3%)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1.9%)는 미즈호에서 반도체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 힘입어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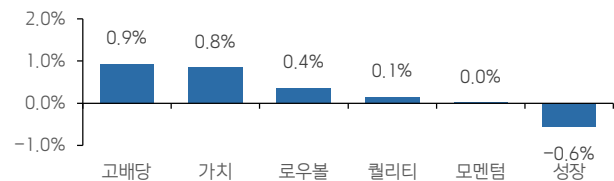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90.70	+0.17%	USD/KRW	1,189.80	+0.39%
NASDAQ	15,775.14	-0.5%	달러 지수	96.48	-0.07%
다우	35,813.80	+0.55%	EUR/USD	1.12	+0.11%
VIX	19.31	+0.73%	USD/CNH	6.39	-0.02%
러셀 2000	2,327.86	-0.15%	USD/JPY	115.13	+0.22%
필라. 반도체	3,834.43	-0.3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874.53	+0.81%	국고채 3년	2.020	-0.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400	+1bp
Eurostoxx50	4,283.82	-1.26%	미국 국채 2년	0.612	+2.8bp
MSCI 전세계 지수	750.57	-0.58%	미국 국채 10년	1.676	+5.2bp
MSCI DM 지수	3,201.49	-0.5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61.56	-0.6%	WTI	78.75	+2.61%
MSCI 한국 ETF	79.41	-0.77%	금	1793	-0.8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1.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 투심에 미치는 영향 2.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장중 주가 급변 가능성 3. 최근 강달러 기조에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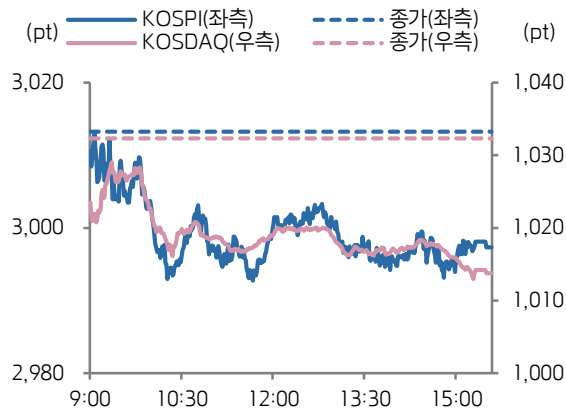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대 선결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22 일 파월 의장의 연임 유력 소식 이후 금융시장에서도 재차 연준의 조기 긴축 강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모습. 같은 날 파월의장의 “고물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라는 발언이 1.7%대 진입을 노리고 있는 10 년물 국채금리 급등, 달러화 강세를 유발. 그러나 기존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며, 인플레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바이든의 파월의장 지목 이후 맥락 상 금융시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했던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

물론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미 시장 참여자들도 테이퍼링 속도 확대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생각해볼 점은 연준 또한 데이터 후행적으로 정책 변화에 나선다는 것. 추후 발표되는 인플레 관련 가격 데이터들에서 물가 급등세 진정 신호가 등장할 경우,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 OPEC 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치달지 않았음을 시사. 미국의 11 월 제조업 PMI 예비치(59.1, 예상 59.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급난, 가격 부담에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관련 충격을 예상보다 양호하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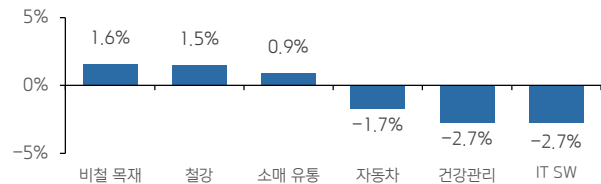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급등, 미국 성장주 조정 vs 양호했던 선진국 제조업 PMI, 블락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기대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강세에 따른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개선 전망 등 상하방 요인들을 소화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전망. 최근 잇따른 주가 급락세를 보였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낙폭과대 인식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으나, 그동안 레버리지성 자금도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 시 장중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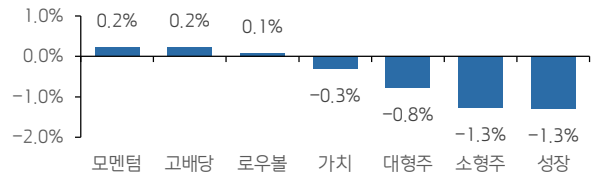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